다락방 모임 나눔지 (9/20 주간)

교훈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창 16:1-16)

일상 나눔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 보세요.**
찬송 하기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본문 읽기	**창세기 16:1-16**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훈하며, 크신 긍휼과 은혜로 여종 하갈의 고통을 살피십니다.

1. 침묵 속에 교훈하시는 하나님: 사래의 계획이 실패할 때

아브람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고 믿었습니다(15:6). 하지만 여전히 불임이었던 사래는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 자녀를 얻겠다는 계획을 제안합니다. (이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하와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스스로 집을 세우겠다'는 사래의 잘못된 자기 주도성과 자기중심성이 드러납니다. 성경의 나레이터는 "아브람의 아내(이샤)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그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이샤)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래가 자기 여종에게 아내의 지위를 얻게 한 셈이란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래의 계획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자, 여주인 사래를 멸시합니다.

사래는 자신이 계획한 일이 생각대로 안 풀리니까 남편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브람은 하갈을 사래의 처분에 맡깁니다. 사래는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사래의 학대를 못 참고 집을 떠납니다. 성경은 사래의 잘못을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이 과정에서 사래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조급함으로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면서, 사래는 하나님을 더 배우고 성장해야 했습니다.

사래가 자기 집을 세우겠다고 벌인 일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고통만 가중시킨 것과 비슷한 일이 우리 시대에도 많습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현실적이고 빠른 실행력이 돋보이는 계획도, 그 뿌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 원하는 결과를 빨리 만들겠다는 오만, 착각, 조급함이 있다? 그러면 결코 좋은 열매가 안 나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본질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가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서, 좋은 열매를 지속해서 맺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살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하갈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사래의 학대를 피해 도망간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놀랍게도 "하갈아"라고 부르는 것은 고대 근동 문헌에서 신이 한 여성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거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여종을 찾아가시고, 보살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사래의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본연의 지위를 이탈하지 말고 여주인에게 돌아가 순종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수가 셀 수 없게 하겠다'며 아브람에게 주셨던 약속에 버금가는 약속을 주십니다(10절). 하나님이 파격적인 은혜로 하갈을 대하신 이유는 그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하나님이 들으셨다)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들나귀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고, 그의 후손들도 독립적으로 살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샘을 브엘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 계신 이의 우물'이라 이름합니다.

왜 하나님은 도망친 이집트 여자 노예에게 (아브람에게 주신 것에 버금가는 약속을 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까요? 지금 이집트 여자 노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400년 후 이집트에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섭리를 보여주며,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람의 가정 전체를 교훈하십니다.

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겠다는 사래의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제 사래는 무대에서 퇴장하고 아브람이 등장해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짓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람의 아들로서 독립된 지위를 얻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래가 변합니다. 나중에 사라는 남편을 '내 주인(아도나이)'으로 부릅니다(창 18:12). 이후 사라는 고난받는 여성들에게 순종과 선행의 모범으로 칭송받습니다(벧전 3:6). 자신의 계획이 뒤틀리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두 여인이 모두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하갈은 여종으로서,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로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인공위성과 AI와 화성 탐사선 계획을 실행하지만 초월을 향한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래와 하갈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비로소 영적인 차원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이 안 보이고,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때 영적인 차원이 열리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눔 포인트

1. 사래가 아브람에게 어떤 계획을 제안합니까?(2절) 이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2-3절)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2. 사래의 계획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4-6절)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갈 6:9, 롬 8:5-6)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 **갈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 **롬 8:5-6**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3.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며(7-8절), 무엇을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까?(9-12절)
이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4.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15절) 아브람의 가정은 어떻게 모두 제자리를 찾습니까?

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합심 기도	**말씀을 기억하며 / 후원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를 위해 / 다락방과 교회를 위해**
모임 마무리	**광고 /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 주기도문**